

성시신문 Magazine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성시화 · 교계 2023 신년인사

기획특집

MZ세대를 위해 X세대에게 고함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신앙상식

기획연재

1세기 전, 춘천지역을 말한 무스선교사
성시연구소장으로 취임하며

문화에 빠지다

맛 기행 겨울을 품은 만두 이야기

영화이야기 빛이 있으라

영화감상 박진원 Genesis

책속의 책 소요리문답과 함께하는 365 교리 묵상

순전한 기독교 | 작은 자의 하나님

건강 목련과 콧병

248

JANUARY 2023



창간1998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Contents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성시화 · 교계 | 2023년 신년인사

- 03** 성시화는 나로부터 | 이수형 목사 **04** 춘천기독교연합회 | 김기만 목사
05 춘천목회자연합회 | 차성희 목사 **06** 춘천장로연합회 | 이정희 장로
07 춘천홀리클럽 | 한정호 장로 **08**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 안창학 목사

기획특집

- 09** MZ세대를 위해 X세대에게 고함 | 이관형 원장
12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신앙상식 | 최준혁 목사

기획연재

- 14** 1세기 전, 춘천지역을 말한 무스 선교사 | 김동정 장로
17 성시연구소장으로 취임하며 | 조용호 박사

문화 | 영화 | 책 FOOD MOVIE BOOK

- 19** 겨울을 품은 만두 이야기 | 이관형 권사
21 영화이야기 빛이있으라 Let There Be Light | 김춘배 화백
23 명화감상 | 박진원 Genesis
24 책속의 책 | 정숙현 전도사
25 건강 목련과 콧병 | 이시형 원장



춘천성시화운동후원하기

후원
참여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

춘천성시화운동본부 QR코드 후원참여에 들어가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성시화는 나로부터 ...

이수형 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순복음춘천교회)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은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성시화운동 5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은 거룩한 소수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심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의 성취를 돕고, 민족복음화운동과 세계선교를 돕고자 하는 정신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도시중심의 최초의 성시화 운동입니다.



▲이수형 목사

이사야 60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귀환 후에 자기 땅에서 누릴 번영과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동시에 오실 메시아 왕국과 그 왕국에서 성취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에 임할 것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사방에서 모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큰 번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그리스도의 참 빛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춰야 합니다. 오늘 교회 위기는 거룩함을 잃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사야 60장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22절이 말하는 그 거룩한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숫자에 있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력이 관건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0-21절은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께 붙잡힌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낼 때 그 어두운 곳에 예수님의 참 빛을 비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시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가 그의 능력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일당 천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명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권능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킨 그 일들을 거룩한 소수인 우리를 통해 이뤄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36절). 아멘!

춘천기독교연합회

김기만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옥산포교회)



▲김기만 목사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게 된 옥산포침례교회 김기만 목사입니다. 먼저, 춘천의 모든 교회가 연합하는 일과 춘천성시화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섬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춘천은 성시화운동이 시작된 성시화의 고장으로서 지난해에는 성시화운동 50주년을 기념하여 뜻깊은 행사를 은혜 중에 치렀습니다. 춘천에서 시작된 성시화운동이, 한국성시화운동으로, 더 나아가 세계성시화운동으로 발전해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쓰임 받았던 수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수고하고 계시는 성시화운동본부의 임원들

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는 성시화운동의 새로운 50년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첫해입니다. 막중한 책임을 공감하며 성시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도시 춘천! 행복한 도시 춘천! 아름다운 도시 춘천!”을 꿈꾸며 춘천의 모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고민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한 해 동안 춘천성시화운동이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춘천목회자연합회

차성회 목사
(춘천목회자연합회 회장, 샘밭교회)

할렐루야!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목회 현실 상황이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개인주의로 시작되어 코로나19 팬데믹 2년 넘는 비대면 상황을 거치면서 나타난 가나안 성도의 증가와 교회에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닳을 내리지 못하고 떠도는 플로팅 크리스천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춘천 목회자연합회와 기독교연합회, 성시화 운동 등을 포함한 여러 교계단체들의 애씀과 수고하심으로 계속 건재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출구를 지나는 동안 성도들을 돌보시며 쉽지 않았던 목회 현장을 지키신 모든 목사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차성회 목사

말 그대로 쓰나미 파도 같은 변화된 상황에서 목양을 책임을 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부지런히 현실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에베레스트산을 올라갈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셰르파'입니다. '셰르파'는 네팔의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민족입니다. 아무리 험하고 가파른 곳이라도 '셰르파'들이 가면 길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의 길잡이가 돼 주고 짐을 대신 짊어지며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정신을 '패스브레이킹'(Path, 사람들이 지나다녀 생긴 작은 길 + Breaking, 깨트리다)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길을 내는 개척자를 의미합니다.

춘천 교계 목회자들과 먼저 믿은 성도들이 '패스브레이킹' 정신으로 현실 상황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면 새로운 개척의 길들이 열릴 것입니다. 닫힌 문도 열리고, 없던 길도 생기는 해결과 응답 그리고 꿈의 성취가 주 안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춘천 교계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침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하겠습니다. 나침반은 어떤 상황이나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방향을 바로 제시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현실은 자기가 속해있는 교회만을 위해 일할 때는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춘천에 세워진 기독교 단체들과 교회들이 협력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좀 더 희생하고 섬기며 책임을 다하는 착한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3년 새해 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의 목회자들과 성도들께서 섬기는 사역 현장과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춘천장로연합회

이정희 장로

(춘천장로연합회 회장, 창대교회)



▲이정희 장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새해 새 아침에 슬픔과 애통함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며 주 예수 은총을 찬양하는 찬송이 널리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먼 거리와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해안이나 높은 산을 찾아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마음의 소원을 빌면서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히 자기의 의지와 방법대로 살았던 어두운 인생의 밤을 뒤로하고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새 아침을 맞이하고 변화된 삶을 산 야곱처럼 새해 새 아침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야곱처럼 내 의지와 내 방법대로 살아온 2022년을 되돌아보며 나의 부족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2023년 계묘년 새해 첫날 새 아침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며 2023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날은 시간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내 마음이 새로워질 때 새날이 되고 새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절) 브니엘의 새 아침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쁨과 환희의 새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첫날만이 아니라 2023년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만나는 설렘과 기도로 새로운 새 아침을 열어가므로 평범한 일상이 변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가는 행복한 계묘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춘천홀리클럽

한정호 장로

(춘천홀리클럽 회장, 춘천동부교회)



▲ 한정호 장로

할렐루야!

2023년 새해를 새 소망으로 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춘천홀리클럽 회원 여러분께 정중히 새해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1996년 창립한 평신도 선교단체인 춘천홀리클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2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회원이 마음과 뜻과 지혜를 모아 「춘천 성시화를 위한 기도, 평신도 영성 회복, 지역과 교회 섬김」을 목표로 정기 기도회와 창립 감사예배, 기독교 연합사업 참여, 소외된 이웃돕기,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춘천성시화를 위한 주님의 일꾼으로, 춘천을 믿음과 사랑이 넘치며 거룩하고 행복한 도시로 가꾸어 가라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숭고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마다 열심히 헌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부족한 제가 춘천홀리클럽 제14대 회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춘천성시화를 향한 저희들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데 지금까지 그래주신 것처럼 더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이 모두 성취되시는 힘찬 도약의 새해가 되시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새해가 되시옵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총무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안창학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안창학 목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총무)



▲안창학 목사

할렐루야!

2022년이 저물어 가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신임총무 안창학 목사가 독자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은 지 어느새 3년여 시간이 흘러갑니다.

엔데믹을 시원하게 선언하지 못하는 작금의 위드코로나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디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촌의 온 인류가 공포에 떨면서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부터 선교 현장에 이르기까지 크나큰 영적 궤방을 받고 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광야행진을 지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

안 땅에 들어간 뒤에도 그들 앞에는 또 하나의 미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토착 우상숭배 족속들인 헷족속, 기르가스족속, 아모리족속, 가나안족속, 브리스족속, 히위족속, 여부스족속 등 가나안 일곱 부족을 몰아내는 정복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의 전선에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 편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룩한 나라를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종하며 영적 전쟁을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 안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마침내 하나님을 위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원소개 ◇

강원지회 이사장(순복음춘천교회)

이수형 목사

강원지회 회 장(춘천제일감리교회)

이용호 목사

강원지회 총 무(2군단 직할 2포병여단 899대대 선진교회) 안창학 목사

MZ세대를 위해 X세대에게 고함

이관형 원장(춘천 자연유치원)

MZ(엠지)세대를 MZ(엠제트)세대라 부르는 나는 국민(초등)학교 시절 TV-마징가Z(제트)를 시청했던 X세대(1965~1979년)다. 소위 꼰대라 불리는 우리 X세대들이 MZ세대를 평가하는 한마디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이다. 여기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단적인 사례를 들면 MZ세대들 중 공적 예배 시에도 스벅(스타벅스)에서 테이크아웃한 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딱하니 예배실까지 들고 와서 목사님의 설교 중에도 커피를 훌쩍훌쩍 마시며 예배드리는 모습이 솔직히 못마땅해서 '어찌다가 저 지경인지?'라고 눈총을 주지만, 그들은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그저 "용통성 없이 별길 다 가지고 트집이야"라는 듯한 눈빛으로 따박따박 말대꾸 레이저 빛을 쏟아낸다. X세대인 나는 어려서부터 장로교단의 엄격한 목사님으로부터 거룩한 주일에는 절대 돈을 쓰면 안 된다는 호통에 가까운 말씀에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멀리까지 걸어 다녔고 심지어 동네 구멍가게에서 껌 한 통도 사질 못했다. (참고: 다른 세대와는 달리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인 M세대(1980~1995년생/26-42세)와 Z세대(1996-2010년생/12-25세)를 통합하여 부른다.)



힘들지만 쓰러지지 않는 MZ세대

MBTI란 생소한 것으로 자기를 대변하는 MZ세대는 온라인 홍보물에 익숙하다 못해 능력자들이다. 이들의 학창시절이란 정글의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해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강도 높은 평가를 치열하게 받아왔다. 그러기에 일상이 평가라 경쟁의 형태가 지속되었다. MZ세대가 공정성에 예민해진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며 자라온 탓에 공정성과 능력주의가 이들이 살아온 정글의 생존 규칙 때문일 것이다.

MZ세대는 왜 회사를 떠나나

MZ세대는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참으며 일하지 않는다. 정규직도 싫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그들의 비전은 다른 곳에 있다. 반면 지금은 쫓대라고 불리지만 1990년대 초반에 신인류로 불렸던 우리 X세대는 반복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노련하게 해답을 얻어내며 치열하게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사회는 논리 구조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MZ세대의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기에는 노련함이 더 이상 지혜가 될 수 없다.

말세에 하나님의 비밀병기인 가정과 자녀가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대부터 2020년까지 사회, 경제적 성장 변화가 크게 없었지만,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한 자리 숫자로 바닥을 기고 있는 저성장이 계속되다 보니 그만큼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생활비를 지출하고 남은 돈으로 평생 저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을 살 기회가 거의 없다. 이와 같은 불안한 상황에서 MZ세대는 꿈포세대(꿈을 포기한 세대)라 불리며, 이성 교제의 횟수도 현격히 줄어들어 특히 미혼 남성들에게는 '여자친구'라는 말은 우스갯 소리로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할 만큼 심각하다. 결혼이 전제되지 못하는 연애는 무의미한 연애. 즉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하기에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집을 포기하다 보니 결혼도 포기하여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설령 결혼을 한다 해도 양육비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많고 아이가 있어도 하나가 고작이다. 이에 지방 소도시에선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도 없어지고 있으며 그 많던 결혼식장은 장례식장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노인요양원으로 바뀌고 있다.(2022년 봄, 서울과 경기지역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약 1,700개가 폐원, 앞으로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지면 중고등부와 청년부도 줄어들다는 절망적인 상황이 예시된다.) 아울러 여기에 유튜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의 발달로 인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등의 우상숭배가 넘쳐나는 가운데 나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교하게 되니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도 만연해지고 있다.

선교의 헌신을 각오하는 수많은 MZ세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사단은 지금도 MZ세대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

MZ 세대들의 교회 이탈은 크게 다섯 가지 이유다. (전병철 교수/ 아신대학교 교수)

- ①목회자와의 관계(목회자의 언행일치/ 설교/ 헌신(헌금)강요) ②목회자의 잦은 교체 ③공동체 관계 ④개인 신앙문제 ⑤교회를 문화 차원으로 다니는 타종교인 등 이와 같은 이유로

천주교로 가는 MZ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현재 보이지 않는 사단의 심각한 영적 공격을 받는 전쟁 중에 있다. 그런데 영적 공격을 대적하는 (성도라 불리는) 일부 끈대들의 방식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여 사단을 대적해야 함에도 그동안 본인이 겪었던 반복된 연습과 훈련이란 경험과 고집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경험이나 고집은 지혜가 아니다. 끈대들은 하루빨리 익숙한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인지적 구두쇠 심보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또한, 기성 교회도 부흥의 역사와 옛 영광을 잊지 못해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하고 있지만 좋은 말로 안정일 뿐 변화에 뒤쳐진 것이다. 다시 말해 잊지 못하는 과거의 강점들이 시대 변화의 혁신에 저해되는 요소로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다.

언런(Unlearn) “배운 것을 버리고 다시 배우기”

‘배운 것을 버린다.’는 표현은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가 1990년대에 했던 말이다. “21 세기에서 문맹자란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운 것을 버리고, 다시 배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할 것이다.” 그동안 배운 것을 버려야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과거의 습관을 빨리 버리고 현재 상황에 잘 적응해야 한다.

세상을 바꾼다는 다음 세대인 MZ세대들을 우리 끈대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절대 끌어들이지 말고, 그들과 꾸준히 소통해야 하며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도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함께 간증을 만들면서 MZ세대들의 가치를 창출하도록 밑거름을 만들어줘야 함은 물론 2010년생 이후인 알파 세대도 포함해, 모든 세대를 통틀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방법만 변할 뿐 사명은 같다.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신앙상식 1"

최준혁 목사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교 철학박사 (조직신학), 루터대학교 신학과 출강
기독교한국루터회 가까운 교회(춘천) 담임목사〉

부겐하겐(Johannes Bugenhagen, 1485~1558), 최초의 개신교 목사16세기 독일의 종교 개혁가 마르틴 루터(Martin Luthe)의 가장 중요한 동료 중 한 명은 요하네스 부겐하겐(Johannes Bugenhagen)입니다. 아마도 부겐하겐의 노력이 없었다면 북독일과, 스칸디나비아반도에 개신교회(루터교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이 루터라는 한 개인의 고독한 전투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하나님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인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부겐하겐은 그의 아버지 게르하르트(Gerhard)가 시의원이었던 포메라니아(Pomerania, 현 폴란드)의 볼린(Wollin)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를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에서 공부를 시작하지만 졸업하지 못합니다. 물론 당시에 흔한 일이긴 했습니다. 다음에 그는 트렙토(Treptow)의 시립 학교에서 선생이 되었으며 이어서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규교육을 받은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성서해석 분야에서 이름을 떨쳤으며 1509년에 사제로 서품받고 트렙토(Treptow)에 있는 마리엔 교회(Marienkirche)의 보좌신부가 되었습니다.

부겐하겐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뜨거운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일을 했기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논제와 논문을 접하고 종교개혁과 루터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1521년,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비텐베르크 시로 간 그는 루터와 멜란히톤 옆에서 종교개혁의 주요 인사 중 한 명이 됩니다. 루터와 부겐하겐은 서로 깊이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종교개혁의 도시인 비텐베르크에서 부겐하겐은 1522년 루터보다 3년 일찍 결혼하여 독신생활을 청산합니다.

첫 번째로 청빙 받은 개신교회 목사

이듬해인 1523년 10월 25일 그는 비텐베르크 시의회와 비텐베르크 시립교회의 신앙공동체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들로 구성된 청빙위원회로부터 개신교회의 첫 번째 목사로 청빙 됩니다. 주교나 수도원장이 안수하면 절차와 상관없이 사제가 되었던 가톨릭교회와 달리 부겐하겐은 교회로부터는 신앙을, 시민사회로부터는 시민적 윤리와 도덕을, 그리고 학자들로 부터는 학문적인 검증을 받아 최초의 개신교 목사로 소명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도 목사로 청빙을 받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바른 개신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 지성 그리고 윤리의식이 골고루 갖추어져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목사가 가야 하는 소명의 길이 이렇게 좁은 길임을 부겐하겐의 청빙 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직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소명을 받자 루터는 적극적으로 부겐하겐을 지원하고 격려합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부겐하겐은 루터를 비롯한 다른 신학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교회의 예배, 학교 및 교회의 사회봉사(디아코니아)를 포괄적으로 재조직합니다. 이렇게 부겐하겐은 비텐베르크 시립교회(Die Stadtkirche in Wittenberg)의 목사로 활동하며, 동시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강사가 됩니다. 그는 독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최초의 개신교 목사로 언급됩니다. 부겐하겐은 비텐베르크 교구에 임명이 되면서 루터의 담임목사가 됩니다. 루터가 1525년에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했을 때, 부겐하겐은 이들의 결혼식을 집례 했고 나중에는 루터의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역사적 자료들은 그와 루터 사이의 특별한 목회적 관계를 보여줍니다. 신앙과 내적인 평화에 대한 확신으로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시기를 보낸 부겐하겐은 루터가 적들로부터 공격받을 때 말씀의 선한 능력으로 루터를 위로합니다. 그는 바로 복음을 재발견한 사람 마르틴 루터를 섬기는 목사였습니다. 루터는 부겐하겐의 위로와 격려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참조: Ev.- Luth. Volkskalender 1977, p.60ff).

부겐하겐의 노력으로 새로운 복음이 북독일에 전파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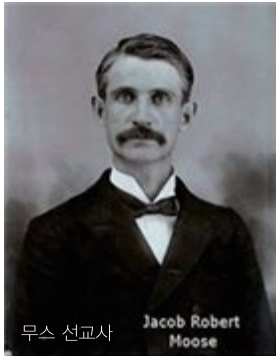
루터교회의 예전 의식을 개편할 때 부겐하겐이 협력하여 많은 일을 합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유산들을 북독일의 언어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어로 번역합니다. 부겐하겐이 없었다면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루터교는 국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여정에서 그의 중요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개신교회의 헌법을 만든 이가 바로 그였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신학자라면 부겐하겐은 종교개혁의 법학자 또는 법률고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부겐하겐은 또 한 명의 개혁가로 간주됩니다. 그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헌신과 지극한 충성심으로 비텐베르크 목사직을 부지런히 수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실제 교회의 주교(혹은 총회장)처럼 보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겐하겐을 "종교개혁의 주교"라고 부르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1세기 전, 춘천지역을 말한 무스 선교사

김동정 장로(신성교회, 카톨릭관동대학 교수)



감자의 한반도 전래-선교사에 의해서도 전래

감자(Potato)는 중앙 안데스 지대에 위치한 한랭지 페루와 볼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고산의 야생식물로서 출발하였다. 기원전 500년 무렵 작물화되어 온난지에서 한랭지까지 재배되어서 근채류 중에서 가장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작물로 알려져 있다.

이 작물은 유럽을 경유하여 네덜란드에 의해서 16세기 중엽 중국에 도입되었다. 조선에는 1823~1832년 무렵 중국 만주에서 함경북도 지역으로, 독일 선교사에 의해서 충청도 해안으로 각각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자'라는 명칭은 고구마를 뜻하던 중국 한자인 '감저'에서 유래하였으며, 1823년 최초로 만주에서 함경도로 전래되었고, 1832년에는 영국 상선 Lord Amherst호에 동승하고 있던 독일 선교사 귀츨라프가 충청도 해안에 감자를 심어서 재배법을 가르쳤다.

독일 선교사 칼 귀츨라프(Karl Friedrich August Gutzlaff, 1803-1851)는 1832년 7월 17일 한국 몽금포를 방문해, 한 달여 남짓 머물렀다. 30일에 서양에서 감자를 처음 들여와 백성들의 구황식품으로 배고픔의 고통을 덜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포도 재배법과 포도주 담그는 방법도 전수했다.

1832년 7월 30일 일기에는 “우리는 감자를 심으러 가서 밭에 감자를 심고, 성공적인 감자 재배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글로 써주고 파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유익한 선행마저도 처음에는 주민들이 완강하게 거부했다. 이 나라 국법에 어떤 외국 농작물의 수입도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거부 행위에 개의치 아니하고 '혁신이 있어야 수익이 있다'라고 그들이 수긍할 때까지 열심히 설명하자 말없이 승복했다”고 기록했다.

한편 20세기에 들어서 간행된 1912년 「조선농회보」 7월호에는 감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조선에서 감자 재배가 근년에 시작된 것이 아님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바이지만 그 역사가 확실하지 않다. 함경북도의 조참여관(趙參與官)이 말하기를 1873년 조선팔도가 일대 천재를 입어 여름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서 파종이 늦어지는데다 음력 8월 11 일에는 팔도에 첫서리가 내려서 농작물이 전멸하였다. 다음 해에 감자가 비로소 들어왔는데, 이것이 중국을 통하여 들어 온 것인지 선교사가 직접 수입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서울에는 1879년에 선교사가 들여왔고 1883년경에는 선교사의 손을 거쳐 감자가 재배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강원도를 ‘감자바위’ 라고 기록한 무스 선교사

강원도는 예부터 ‘강원도 감자바위’라는 별칭이 있듯이 감자 주산지이다. 실제 강원도 사람들을 ‘감자바위’라고 하는데 ‘감자바위’는 원래 ‘감자바위’의 경상도식 발음에서 유래한 말로, 강원도는 산이 많아 감자를 많이 재배하고 감자를 주식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감자바위’에서 ‘바위’는 흔히 특정 지역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감자바위’는 ‘감자를 많이 먹고 자란 사람’에서 나온 말로 시골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무스 선교사가 조선에서는 빵과 육류를 대신하는 쌀이 전국 어디서나 재배되며 보리나 밀도 적지 않게 재배되고 있었다고 하면서 식량이 부족한 강원도 사람들이 감자를 즐겨 먹어서 당시 강원도 사람들을 ‘감자바위’라고 불렀다는 글을 남기고 있다.

“

300여 년 전, 감자가 이 ‘은자(隱者)의 나라’에 들어왔으며, 감자는 흰쌀밥이 있을 때는 대부분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쌀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많이 찾는다. 감자가 산에서도 잘 자라고 산간 지방 사람들이 많이 먹기에 종종 이 지역(강원도) 사람들을 ‘감자바위’라고 부른다. 고구마가 이 나라에 선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이지만, 고구마는 그 사촌격인 감자보다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 같다.

”

라고 하여 강원도 사람들을 ‘감자바위’라 부른다는 글을 남겼다. 감자가 강원도에 언제 들어왔고 얼마나 빨리 확산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무스 선교사가 쓴 책 「1900년 조선에 살다」(Village Life in Korea)를 “1909년 8월 20일, 조선의 춘천에서 책을 썼다”고 하였는데, 이때는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1년 전이었다.

보편적으로 강원도에 감자가 많이 생산된 것은 일제강점기였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1차세계대전 진행 중에 농업대학을 졸업한 독일인 포로 등을 아이치[愛知]산업주식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강원도 회양군 난곡면으로 보내 ‘난곡기계농장’을 경영하면서 이곳의 호밀과 감자가 지역에 적합한 작물임을 알아내고 감자는 80개 이상의 품종을 실험하여 난곡 1·2·3호라는 신품종을 개발하였다. 이 감자품종은 냉습한 풍토에 강하고 맛도 좋아 시장에서도 잘 팔리어 일제강점기하에서 강원도가 감자의 고장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즉 적어도 강원도가 감자의 고장으로 불리기 시작할 때가 192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는데, 무스 선교사는 1909년에 ‘감자바위’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니, 얼마나 이른 시기에 강원도에 감자가 보급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더구나 그가 다닌 곳이 춘천을 비롯한 원주, 홍천, 양구 등지이니, 이곳에서도 이미 감자가 많이 생산되었고 일상에 주요한 음식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알 수도 있다.



▲무스 선교사 부부 이후 철원과 춘천지역(1929~1934년)에서 무스 선교사 처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루이스 선교사 부부와 교인들(1929)

무스 선교사는 1901년 4월 춘천에 '감리교 신도 모임'을 결성하고 1904년 9월에 제8차 선교연회에서 춘천이 독립구역이 되는데 기여했고, 1905년 4월 15일에 무스의 인도로 원주제일감리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으며, 1907년 춘천 아동리와 대판리 일대의 임야 3만 5천여 평을 매입하고 1907년 9월에 춘천선교부가 개설됨에 따라 1908년 9월에 춘천으로 전임되어 강원지방 개척선교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때 무스 가족이 춘천에 이사하여 춘천에 거주한 최초의 서양인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이덕수 전도사와 함께 홍천, 양구, 원주 등지에 교회를 설립하고 지방 사업을 확장하였다. 1908년 여름 춘천교회 예배당을 배로 증축하였고 1909년 여름 춘천교회 12칸짜리 예배당을 마련하였다. 1917년 신병으로 귀국하였다가 1921년 11월 다시 내한하여 1924년 가을까지 철원에서 시무하다 다시 중병으로 귀국하여 4년간 고생하다가 1928년 8월 28일 소천하였다.

그는 1901년 춘천에서 시작하여 1924년 철원에서 사역이 마무리될 때까지 강원도와 각별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 걷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때로는 선교선을 타고 복음을 전한 관계로 당시 춘천구역이 감리교에서 가장 부흥한 지역이 되기도 하였다. 무스 선교사 부부의 헌신과 이덕수 전도사를 비롯한 지역의 전도부인 등의 각고의 헌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교훈으로 우뚝 서 있다.

성시연구소장으로 취임하며

조용호 박사(성시화연구소장)

2004년 1월, 홍릉에 위치한 KDI 국제정책대학원에 입학하여 도서관에 들렀을 때 하바드 케네디스쿨에서 발간한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하여 정리한 20권으로 구성된 책을 보게 되었다. 이 방대한 분량의 책은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한국을 분석하며 한국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설명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주요 자료가 되었다.

사실 한국의 발전과 경제성장은 국제개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경제발전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라면 경제정책의 의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위 책에서 제시하는 한국발전의 중요한 제시어는 한국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not united land but united people"로 설명하고 있었다. 오늘날도 수많은 나라가 동족 간 내전을 겪고 그 후유증으로 갈등과 분열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쟁과 분단을 겪으며 오히려 분열의 길을 가지 않고 국민이 한마음으로 단합된 통합국가의 길을 걸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단합된 국민의 뜻은 "법률"로 나타나기도 한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만 3년간 법제처에서 국민의 단합된 의지를 상세하게 담아낸 "법제"를 역사적으로 정리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법제, 사회발전과 법제, 그리고 행정발전과 법제를 연달아 발간하였다. 이 저술에 필자도 참여하여 기획하고 지방자치 분야를 작성한 즐거움을 누렸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하나 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법은 국민의 통합된 마음의 결과이지 어찌 법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발전지향적인 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사랑으로 감싸고 인내하며 성숙하기를 기다려 주었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경제성장기에 한국교회는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빛과 소금이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불을 일으키는 믿음과 감싸는 밤에 어둠을 걷고 새벽을 찾아 떠나는 소망을 보여주고 빈부를 구분하지 않고 개인의 부족함을 업신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었다. 지금도 교회는 그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요즘 교회가 어렵다고 한다. 그 어려움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국민 분열임을 알 수 있다. 예수그리스도는 여전히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이시다.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사회는 "not united land and people"의 시대가 되었다. 정치는 이 분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자양분으로 하여 먹고 살고, 나랏일의 책임을 맡은 사람조차도 사람의 마음을 모으기보다 자기 길을 걸으려 한다. 일꾼은 없고 자기 진영의 이념적 목적을 주장하는 데만 관심을 가진다.

이런 갈등의 시기에 중심을 잡고 반석 같은 굳센 믿음으로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이 연구자, 교육가, 관료, 공공분야 전문직 그리고 사역자 그룹이다. 합리적이고 전문적 식견으로 정치적 편견과 이념의 안개를 걷고 예수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21세기 성시화 운동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2023년, 함께 이 길을 걸을 것입니다."

"점쟁이들에게 속지 말고"

유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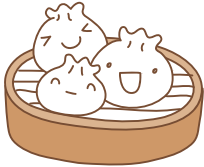
어떤 사람이 꿈에 예쁜 방울토마토를 먹는데 일곱 개였습니다.
꿈에서 깨어 일어났는데 오전 7시입니다.
아침을 먹는데 김밥이 일곱 개가 나왔네요.
출근길에 버스를 탔더니 7번 버스였습니다.
이거 분명 무슨 행운의 계시가 아닐까요.
얼른 회사에서 조퇴하고 은행으로 가서 있는 돈을 다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경마장으로 달려가서 7번 말에 몽땅 걸었지요.
어떻게 됐을까요.

7번 말이 일곱 마리 중에서 일곱 번째로, 꼴찌로 들어왔답니다.

예레미야는 점쟁이와 술사들에게
휘둘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거짓과 허위에 운명을 맡기고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신앙인은
어둠에 맞서 의연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겨울을 품은 만두 이야기

이관형 권사(한길교회)



만두를 영어로 뭐라 할까? dumpling? 아니다. 우리나라에선 만두를 서비스Service라고 한다. 그럼 물은 영어로 뭐라 할까? 워터Water? 아니다 셀프Self다(웃음)

우리에게 친숙하다 못해 집 안 냉장고 터죽대감으로 있는 만두의 기원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흔히들 만두의 종주국은 중국이라 생각한다. 삼국지에도 나와 있듯이 제갈공명이 풍량이 심한 거센 강을 건너기 위해 사람 머리처럼 생긴 음식을 만들어 강에다 제물로 바쳤다는 설화가 있는데, 그 당시 강에 바친 음식이 마치 남만 사람의 머리와 비슷하다 하여 ‘만두’라고 했다는데 말 그대로 설화다.

만두는 밀가루 베이스에 고기와 야채를 넣고 썬 음식이라 그런지 맛도 모양도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두라고 부르는 이름이 다른 나라에서는 만터우, 만트, 만티, 만투 그리고 이와 사촌 격인 라비올리, 펠메니, 피에로기, 모모라고 불린다.

올해 본지 13년 차 예수의 味笑란 글을 쓰며, 자칭 맛 칼럼니스트라고 우기고 있는 필자는 겨울철 별미인 만두국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떡만두국을 워낙 좋아한다. 어린 시절에 떡만두국은 설날쯤이나 기다리며 즐겼던 음식이지만, 요즘은 여름철 별미 콩국수와는 달리 계절에 상관없이 먹는 음식이 되었으니 정말 맛깔나게 좋은 세상이다. 사실 만두국은 육개장만큼이나 조리하기 힘든 음식이며 본전으로 따지면 비슷한 가격대인 막국수에 비하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다. 만두국에는 칼칼한 맛의 매콤한 김치만두와 담백한 고기만두 두 종류가 대표적이다. 며칠 전 나처럼 떡만두국을 워낙 좋아하는 후배가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끓여주셨던 만두국 집을 찾았다며 춘천 외곽에 위치한 허름한 가정집 같은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형님! 만두국 맛있죠?"라며 연실 물어보는 후배에게 맛있다고는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후배 어머니 음식솜씨가 별루였구나 하는 웃지 못할 일을 겪은 적도 있다. (아마도 만두국보다는 연로하신 식당 주인집 아주머니의 따스한 情 때문에 이곳을 찾는 것 같다) 필자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맛있는 만두국은 우선 베이스가 사골이며 알뜰게 뽀질뽀질하게 미끈한 밀떡이 아닌 쌀로 만든 쫄깃한 떡을 넣고, 반찬은 깍두기, 총각김치도 아닌 국물에 밥을 말아서 먹기에 잘 어울리는 아삭아삭한 김장 김치여야 한다.

(요즘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한류열풍이 드센 이웃 나라인 일본 청년들이 K드라마를 시청하며 냉동 비비고 만두를 불닭볶음면에 싸 먹는 일이 선풍적 인기라고 한다)

만두의 또 다른 매력은 한입 베어 먹기 전엔 김치만두인지 아니면 고기만두인지를 몰라 마치 여행지에서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는 것 같은 하나의 재미로 다가온다. 이에 필자는 군만두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첫인상은 딱딱하니 까칠할 것 같지만 성품은 지방이 많이 들어간 돼지고기 만두처럼 육즙이 담백하니 뱃속을 아니 남의 심정을 잘 위로해주는 배려심 많은 사람이다.

끝으로 필자 마음대로 추천하는 춘천 내 맛있는 만두집을 몇 집 소개하자면 만둣국은 요선동(열두달평양손만두) 석사동(청송막국수) 동면(만천만두국) 후평동(부안막국수) 우두동(천진동만두전골) 군만두(찐만두)는 퇴계동(왕만두), 효자동(왕짱구), 명동(별미당), 운교동(찬이네통큰만두)을 추천한다. 아울러 다음 주엔 군만두를 서비스로 실컷 먹고 싶은 마음에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에 위치한 중국집 중화루에 가려고 한다. 그곳에 가서 짜장면을 주문하면 군만두는 무한리필이다. 이유는? 직접 가서 확인하길 바란다.

Tip: 필자가 집에서 라면보다 더 쉽게 끓여 먹는 즉석 만둣국이 있으니 팔팔 끓는 냄비에 사리곰탕면 스프와 물만두를 넣어서 끓인 뒤 고명으로 즉석 김과 실파를 가위로 잘게 썰어서 얹은 뒤 그 위에 참깨와 참기름을 솔솔 뿌려주면 어느? 음식점 못지않게 맛있다.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김춘배 화백(성시신문 편집위원)



솔 하켄스는 인기 저술가요 교수인데 사랑하는 아내와 세 아들을 둔 행복한 가장이었으나 둘째 아들 데이비가 어린 나이에 암에 걸려 죽은 이유로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책 ‘신을 등지다’(Aborting God)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유명세를 탄다. 신앙심 깊은 아내 케이트는 그런 남편과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어 괴로워하다가 결국 이혼하고 만다. 하켄스는 집을 나와 혼자 살면서 자유분방한 타락에 빠져들고, 이혼한 케이트와 사는 두 아들도 그런 아버지를 가끔 만나는 일이 달갑지 않은데 술과 방탕으로 지내던 어느 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한다. 4분간의 죽음의 상태에서 하켄스의 영혼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한 빛 속으로 빨려들어 갔고, 그 빛 속에서 죽은 아들 데이비를 만나게 되는데 매우 행복한 얼굴로 ‘아빠는 아직 여기 올 때가 안 되었어요.’라고 말하면서 밀어낸다. 아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고, 그 찬란한 빛 속에서 나오는 것이 싫었으나 데이비는 ‘돌아가서 빛을 비추다가 오세요!’(Let

there be light!)라고 거듭 말한다. 하켄스의 영혼은 즉시 죽은 몸속으로 돌아왔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 뒤로 하켄스는 강연일정을 취소하고 점점 분명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죽은 아들이 천국의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 고뇌하게 된다. 그리고 이혼한 아내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되고, 아내 케이트는 기꺼이 옛 남편을 품어주고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를 소개해준다. 목사의 도움으로 하켄스 교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감격 어린 세례를 받고, 옛 아내에게 다시 프러포즈하여 재혼하게 된다. 방탕하던 아버지와 거리를 두던 두 아들도 기꺼이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가정이 다시 회복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있다'를 증언하기 시작한다.

하켄스 부부는 재훈과 함께 크리스마스 저녁에 LTBL 프로젝트, 곧 지구상 인류들의 핸드폰 빛을 밤하늘에 동시에 쏘아 올리게 하는 '빛의 띠'를 이어서 하늘에 닿도록 하는 계획을 세운다. LTBL은 혹 눈치채시겠지만 Let There Be Light의 이니셜이다. 재미있는 것은 필자의 회화작업에서 갈대와 더불어 빛 내림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 이 LTBL을 제목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재훈의 행복도 잠시, 이번엔 아내 케이트가 죽은 아들과 같은 암으로 쓰러지고 마는데, 하켄스 가족은 케이트의 암투병과 함께 방송국의 도움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크리스마스에 '빛의 띠'를 이루어내고야 만다. 그와 동시에 결국 케이트도 숨을 거두지만, 그러나 절망이 아니라 죽은 둘째 아들과 함께 찬란한 빛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과 언젠가 다시 만나리라는 확신으로 평온하게 보내게 된다.

〈신은 죽지 않았다 1〉에서 '신은 죽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에게 과제까지 냈으나 결국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는 무신론자 교수 역을 맡은 케빈 소보가 연출을 하고 실제 부인과 극중 주연 부부로 출연한 이 영화는 평점 9.05라는 상당히 높은 호응을 받았다. (기독교 영화에 주로 출연하고 감독하는 케빈 소보는 무신론자에서 회심하는 캐릭터 전문인 것 같아 흥미롭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뜨겁게 솟아오르게 하는 이 영화의 마지막에 펼쳐지는 '빛의 띠' 장면은 압권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으로 띄운 페이드아웃 화면의 자막도 은혜로운 끝맺음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
참고로
동명의 제목으로 독일
노동자 이야기를 다룬 슬로바키아
영화도 있으니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



Genesis I 박진원

박진원(96 X 162cm / Acrylics on Canvas, LED)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신 주님의 시간 역사를, 낮의 해와 밤에 달로 운행하시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컴퓨터 시퀀싱의 도움으로 한 그림 안에서 동이 트고 해가 뜨고 낮이 되고 노을이 지고 밤이 되는 하루의 사이클을 한 평면의 작업에서 구현했습니다. (작가노트)



책속의 책

정숙현 전도사(안디옥교회)

소요리문답과 함께하는 365 교리 묵상 임경근 글/ 이레서원

성경과 교리는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성경을 바르게 묵상하고 왜곡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교리다.
온갖 이단이 활개 치는 시대에 성경의 핵심 진리를 바르게 알고,
삶에 구체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끈다.
저자의 안내를 따라 올 한 해 매일 꾸준히 묵상하다 보면
교리를 기초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더 사랑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순전한 기독교 C.S.루이스 지음/ 장경철, 이종태 옮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표는 절대 온전함이다. 루이스는 이 책에서 물 탄 복음을 믿는 맹탕 기독교가 아니라 복음 원액을 그대로 믿는 순전한 기독교를 말한다.
자분자분하면서 자신만만한 어투로 이것이 '순전한 기독교',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과연 복음에 물을 타고 있지는 않은지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서인 '순전한 기독교' 앞에 자신을 명쾌하게 세우다 보면, 스쳐 갈 뻔했던 기독교의 다양한 보석들을 가득 담아갈 수 있다.



작은 자의 하나님 서진교 지음/ 세움북스

알코올 중독 아버지... 퇴학... 게임 중독... 딸의 장애 판정...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사역자... 이제 193cm인 그에게 '작은 자'라는 또 다른 수식어가 붙는다. 종체 손에 잡지 않는 간증집이지만, 그의 이름이 낯설지 않았기에 망설임 없이 집어 들었다.
그 순간부터는 손에서 놓기가 쉽지 않은 책...
그가 말하는 '작은 자'들을 새해 벽두에 만나보길 권한다.



목련과 콧병

이시형 (이시형 한의원 원장)

봄이 오는 소식을 전하는 꽃들이 있다. 매화, 목련, 개나리, 진달래, 벚꽃, 철쭉 등의 순서로 봄을 맞이해준다.

목련은 3월에 꽃이 피는데 그리 오래가지 않고 금방 떨어진다. 목련은 한문으로 뜻은 나무에 피는 연꽃이라는 의미이다. 보통 나무들은 잎사귀가 먼저 나오고 그 후에 꽃이 피는데 목련은 꽃이 먼저 피어난다.

목련은 한의학에서는 신이화(辛夷花)로 부르는데 이름에 매울 신(辛)이 있어 매운맛이 나며 주로 콧병에 많이 쓰인다. 매운맛은 한방에서는 발산하는 효능이 있어 코 막힌 것을 발산하여 증상을 개선 시켜준다. 또 냄새를 못 맡을 때에도 사용한다. 봄철 환절기에 주위에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

동의보감에는 “성질은 따뜻하며[溫] 맛은 맵고[辛] 독이 없다. 풍으로 속골이 아픈 것을 낮게 하며 얼굴의 주근깨를 없애고 코가 막히는 것, 콧물이 흐르는 것 등을 낮게 한다. 얼굴이 부은 것을 내리게 하며 치통을 멎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수염과 머리털을 나게 한다. 기름으로 만들어 얼굴에 바르면 광택이 난다. 음력 정월과 2월에 꽃이 피는데 털이 부시시한 작은 복숭아 비슷하며 흰빛에 자줏빛을 띤다. 꽃 피기 전에 따야 한다. 활짝 핀 것은 약 기운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현대에서는 코 안에 군살이 생겨 숨이 막히고 아픈 축농증이나 비염으로 코가 막혀 냄새를 못 맡을 때 사용한다.

동의보감에서는 “꽃이 피지 않은 봉우리를 따서 솜털을 제거하고 가루를 내어 한 번에 4g씩 파뿌리(충백)를 넣어 달여 조금씩 자주 먹는다. 또는 숨에 싸서 콧구멍을 막아도 된다.”라고 하였다.

봄 환절기에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봄철에 나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다. 내 몸에 체력이 떨어지면 평소 내 몸에서 약한 부위로 증상이 나타난다. 봄철 과로하지 마시고 저녁 늦게 간식 드시지 마시고 적당한 운동으로 봄 환절기를 잘 보내시길 바란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시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개인

가천홍 강은주 경동현 고순덕 고순화 고정희 광복연 광해옥 광 환 국주영 권경애 권양희 권여림 권영자 권용인 권혁자 권혁재
권현정 김경순 김경애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교 김금란 김기영 김기자 김다정 김도희 김두철 김태순 김명선 김명희 김문수
김미경 김미라 김미숙 김미향 김민섭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옥 김상화 김생수 김설아 김성국 김성희 김세환 김수연 김수일
김숙희 김순덕 김순옥 김순철 김순희 김영관 김영명 김영수 김영순 김영일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분 김옥선 김용배 김용선
김용기 김원중 김은아 김은희 김점자 김정미 김정숙 김정애 김정희 김정희 김중복 김중숙 김중옥 김중익 김중찬 김중희 김주봉
김주혁 김주형 김지영 김춘화 김태균 김학자 김향자 김현주 김현철 김형옥 김혜란 김화분 나정희 남궁명숙 남궁자 남준섭 남하은
노길자 노윤미 노정희 류현구 문현숙 민경원 민병순 민병익 박갑출 박건섭 박금화 박금희 박난영 박노향 박덕남 박동호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문순 박미선 박미자 박미정 박상준 박상혁 박선옥 박소영 박소원 박소영 박순덕 박순배 박애자 박영민 박영호
박옥화 박윤철 박은경 박은혜 박인관 박정란 박종일 박주환 박지인 박지혜 박지환 박창범 박춘자 박필상 박 현 박형덕 박혜성
박 희 박희상 방진선 배명순 배미정 배진철 배한나 배한솔 백광일 백춘하 서경숙 서묘석 서성진 서순옥 서연숙 서은아 서현애
석지찬 성숙자 성완경 성화숙 손병서 손인규 손임순 손학규 송갑수 송근영 송미화 송수정 송영인 송정심 송창근 신건호 신경자
신금호 신달호 신동경 신미연 신성균 신안섭 신영선 신옥섭 신옥자 신은수 신종길 심규향 안순연 안한나 안현주 양봉남 양재순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엄기중 엄기홍 엄혜련 여경구 연소희 연정화 엄은희 엄정원 오성남 오성애 오소연 오재영 오홍금 오홍수
옹애중 옹영옥 우혜진 원병열 원선미 원예슬 원유미 원화숙 원희정 유 근 유나예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영재 유용균 유재란
유점선 유정순 유정희 유희자 윤금숙 윤기춘 윤명숙 윤서경 윤성자 윤애자 윤영기 윤은미 윤은옥 윤정녀 윤정희 윤학병 윤홍목
이기현 이광재 이광필 이규현 이기환 이동현 이명숙 이명순 이무식 이문희 이미숙 이미영 이병림 이병일 이병철 이봉연 이선임
이성도 이성숙 이소영 이숙희 이순자 이숙희 이연숙 이연화 이연희 이영규 이영순 이영운 이영준 이영진 이옥순 이완래 이용숙
이원일 이윤규 이윤주 이은경 이은주 이재곤 이재진 이정미 이정옥 이종완 이종현 이주영 이지영 이지은 이진주 이창주 이천희
이춘선 이충훈 이태우 이하경 이한수 이현석 이현아 이혜란 이혜옥 이효민 이희화 임덕수 임미화 임소희 임소희 임쌍용 임윤희
임인숙 임채철 임청용 장경수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준용 장지원 장진순 장창순 전수진 전윤배 전정희 정계지 정국환 정규시
정금옥 정명옥 정복례 정복희 정선문 정성옥 정우진 정유빈 정은수 정은주 정은하 정인선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주향
정지혜 정진호 정치용 정현우 조경대 조경자 조남진 조돈산 조상균 조성경 조소현 조양숙 조영순 조영자 조원순 조은비 조정섭
조정일 조종현 조진경 조현옥 주명호 주신자 지영필 지운용 지윤성 지정훈 차유진 차재옥 차재관 천향호 최광우 최귀숙 최돈식
최동규 최명기 최문수 최미정 최미혜 최민기 최민희 최선이 최선혜 최선희 최성현 최소희 최승경 최승태 최승화 최연화 최영순
최영희 최애생 최옥순 최윤영 최은숙 최은순 최인숙 최재중 최정락 최중대 최종민 탁광희 피종호 하원자 하윤옥 하은희 한명수
한성우 한순덕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희현 함서현 허순영 허 엽 허인영 허정자 현연희 현재용 홍기수 홍순복 홍영숙 홍은숙
홍의표 홍인숙 홍춘애 홍택기 홍혜림 황금심 황기현 황병찬 황은주 황정숙 황태흠 황변구

☎ 후원교회

감 리 교 회 강 변 제 일 교 회 강 원 침례 교 회 거 성 침례 교 회 그 말씀양문교 회 금 산 교 회
나 능 성 결 교 회 동 신 장로 교 회 밝 은빛 장로 교 회 사 랑 의 교 회 수 암 성 결 교 회 새 춘 천 교 회
석 사 감 리 교 회 소 양 성 결 교 회 소 양 제 일 교 회 순 복음 열린 교 회 순 복음 제 일 교 회 순 복음 조은 교 회
순 복음 춘천 교 회 신 복 교 회 신 성 감 리 교 회 아 미 교 회 임 마 누 엘 교 회 엠 마 오 교 회
여의도순복음춘천교 회 예 사 랑 교 회 예 수 춘 교 회 옥 산포 침례 교 회 온 누 리 교 회 우 두 감 리 교 회
주 의 숲 교 회 주 찬 양 교 회 주 향 장로 교 회 축 복 교 회 춘 천 광 명 교 회 춘 천 광 영 교 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 천 명 성 교 회 춘 천 동 부 교 회 춘 천 예 담 교 회 춘 천 우 리 교 회 춘 천 은 평 교 회
춘 천 은 혜 교 회 춘 천 일 신 교 회 춘 천 중앙 성결 교 회 춘 천 제 일 교 회 춘 천제일장로교 회 춘 천 침례 교 회
춘 천 평 화 교 회 하 늘 평 안 교 회 한 울 섬 김 교 회 혈 동 교 회 화 목 교 회
후 평 제 일 교 회 춘 천 광 장 교 회 산 술 교 회 산 천무지개교 회 제 자 감 리 교 회 하 늘 기쁨 교 회
성 광 교 회 섬 이 있 는 교 회 암 스트롱 병원교 회 춘천호자감리교 회 효 신 교 회 초 대 교 회

☎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매일관광 베드로선교센터 설곡산기도원 아가갤러리 영광한의원 월드비전 춘천CBMC 춘천와이신협
철락의 기쁨 행복재가요양기관 ▶명단(단체)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T.033)256-1260 H.010-9698-2993 / 후원계좌번호:신협 131-005-937566(춘천시시화운동본부)

창간 1998년 9월 15일 발행인 이사장 이수형 편집장 최상도, 이관형 편집위원 이연희, 이영규, 김춘배, 정숙현, 김진솔

편집·발행 춘천시시화운동본부 주소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19 문의 (033) 256-1260 팩스 (033) 257-1260

메일 holycc1972@daum.net

*본 매거진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 매거진에 실린 글, 사진, 그림 등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드림에드에 있으며 허락없이 본 매거진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나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제작 : 춘천 자연유치원



수악기사

관악기 판매 및 수리전문점

임 성 군 대표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82
H.010-2596-9023

E-mail : woodwind.soom@gmail.com
Tel. 033) 257-9023

성시신문 교계소식

2023년 1월부터
춘천 교계소식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QR코드를 찍어 보세요.
2. 성시화운동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holy1972.com) > 신문방송)



성시신문교계소식

춘천기독교 120년사

2023년 2월 출판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문의 : 춘천성시화운동본부(010-9698-2993)



춘천기독교 120년사 편찬위원회